

건국조



[해제]

<건국조>는 작자가 조국 광복을 맞아 새 나라의 건국을 기념하여 지은 작품으로, 3연의 분련체에 전체 14행으로 되어 있다. 김재원의 문집 ,만당유고(晩堂遺稿),(1959년 단권의 석판본 간행)의 ‘잡저(雜著)’편에 <조석가(潮汐歌)>, <망세조(忘世調)>라는 노래와 함께 실려 있다.

[원문]

之地百子千孫朱紫滿門富豪弁州最貴者居此子孫壽如彭
祖百歲老人代不之絶最愛者速發長遠三年少富十年大富
得貴子數三連爲人旺財豐未滿二十年種成大村耳有一詩
詩云

庚酉一脈得居安堀起眞龍亥上蟠間出星峯爲幃局護從枝
葉鎖門闌子申戊丙生人傑丑艮印寅坐者冠誰識方圓樞極
裡四胎四正世高官

建國調

霹火를吐하난우리將兵달神人이共怒한誓天의讐를群羊
과 蚊∞과一樣驅逐하오니銳利한칼날에피가업도다
不嗜殺人者 - 能一之오니 戰畧의長策을祝賀하도다天下
난一人의天下가아니오니維新의建國을祝賀하도다
우리同胞父老더리어願하던죽엄죽지말고風化의萬一을
보고지고우리同胞子弟더리어願하던維新의建國이되고
보니同盟을곧게하여法令이나順從하세

潮汐歌

黃海西구비구비오고가난저潮水아가거드면오지말고오
고드면가지마라人間萬事그렸커든潮水일너무엇

忘世調

때마즘春三月에十五夜달발근대달아래꽃이피고꽃아래

[현대역]

벽화(霹火)를 토(吐)하는 우리 장병(將兵)들 신인(神人)이 공노(共怒)한 서천(誓天)의 수(讐)를 군양(群羊)과 문맹(蚊蠱)과 일양구축(一樣驅逐)하오니 예리(銳利)한 칼날에 피가 없도다

불기살인자(不嗜殺人者) | 능일지(能一之)오니 전략(戰略)의 장책(長策)을 축하(祝賀)하도다.

천하(天下)는 일인(一人)의 천하(天下)가 아니오니 유신(維新)의 건국(建國)을 축하(祝賀)하도다

우리 동포(同胞) 부로(父老)들이여 원(願)하던 죽음 죽지 말고 풍화(風化)의 만일(萬一)을 보고 지고 우리 동포(同胞) 자제(子弟)들이여 원(願)하던 유신(維新)의 건국(建國)이 되고 보니 동맹(同盟)을 굳게 하여 법령(法令)이나 순종(順從)하세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